

# 최저임금 개정안 지역 경제계 술렁

### 국회환노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노동계 '최악 개악' 반발 속 오늘 총파업 예고 지역 중기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우려스럽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소속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한 등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기존에 비해 나아졌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27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한 게 골자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액수를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했고 복리후생비 7% 초과분도 최저임금에

넣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원에 월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25% (39만2500원)를 넘는 상여금 (10만7500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또 7% (10만9900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비롯,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앞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는 총파업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발

표할 예정이다.

청년유니온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청년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급하게 추진되면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그나마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라고 말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부분은 올해 고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당장 해결해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터져 나온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외식업체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서 빠지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라는 이중부담이 전혀 덜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한 편의점 업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점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근로자도,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4일 목표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 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 이은항 광주국세청장 목표세무서 방문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사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청장은 지난 24일 목표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를 찾아 내방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청장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ARS,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시·금호타이어 노사, 中 더블스타 방문

경영·재무실태 파악, 회장면담 광주·곡성공장 독립경영 모색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 중국 공장을 찾아 경영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 노조는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더블스타 중국 칭다오 공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과 면담한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더블스타 중국 공장 방문에는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산업은행 경영관리단도 동행한다.

앞서 차이용선 회장은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로 인수가 결정된 뒤 이뤄진 첫 노·사, 광주시·산업은행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지난 13~15일 운영한 광주시장, 금호타이어 경영진, 노조 대표 등을 중국 칭다오로 초청했지만 노조 내부 갈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블스타와의 본계약(7월) 전 중국 공장을 둘러보고 더블스타의 경영,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광주·곡성 공장 독립 경영 및 시너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아울러 본계약 전 '떡투' 방지를 위한 독립 경영과 시설 투자 방안,

고용보장 안전장치, 스톱업선 등 세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다음달 초 금호타이어 발전 방안을 논의할 미래위원회 출범한다는 계획도 적극 추진중이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노·사가 함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호타이어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중국 더블스타 공장을 찾아 경영,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공장 조경정화, 국내공장 설비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80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5 21 31 32 41 43	24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3,087,620,50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7,122,185
3 5개 숫자일치	1,573,711
4 4개 숫자일치	50,000
5 3개 숫자일치	5,00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여름철 에어컨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공>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여름 특수 마케팅 총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여름 특수 마케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기온이 오르며 에어컨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 것에 대비,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20% 늘렸다.

특히 '무풍에어컨'은 올해 국내에 판매하는 삼성 스탠드형 에어컨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삼성전자는 또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공기청정기 생산라인도 3개월째 풀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의 경우 지난 2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6만대가 판매되는 등 전체 공기청정기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삼성 큐브'는 0.3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초소도 청정 시스템'을 갖췄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아동들이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 광주은행, 43호 선정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5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광주 YWCA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3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3호점으로 선정된 광주 YWCA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곳은 2005년 개소 이후로 공부방의 사물함과 책상, 의자를 제대로 교체하지 못해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광주은행은 아동 19명의 개인사물함과 함께 책상과 의자 도구를 정리할 수 있는 교구제를 추가로 설치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 아동들이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평안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